불교 음식, 우리 음식 원형



고려 옹기와 청자에 음식을 담다

태경 지음/ 양사재 펴냄/ 2만원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우리 음식문화 기초자료 목적
불교음식 우리음식 원형 형성
고려 개경 승려 · 사부대 음식
고려와 송대 음식 교류 조명

먹방, 쿡방, 음식의 개념은 이제 '먹는 것' 과 더불어 '보는 것', '느끼는 것' 으로 확장됐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음식이 만들어지는 과정과 그 과정에 담긴 이유와 근거들은 중요한 콘텐츠가 되었다.

한식과 사찰음식(또는 불교음식)이 한국인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시작되고 변용되었는가를 인문학을 바탕으로 살펴본 신간 〈고려 옹기와 청자에 음식을 담다〉는 고려시대 개경 지역의 승려와 사대부의 음식문화를 살펴보는 것으로 우리 음식에 깃든 내력을 좇는다.

우리 음식문화의 기초 자료에 다가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책은 먼저 송나라에서 유행한 음식문화를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고려시대의 문집, 사료, 저술 등에서 음식을 언급하는 시(詩)와 기사 등을 통해 신라와 조선을 잇는 고려시대의 음식문화를 살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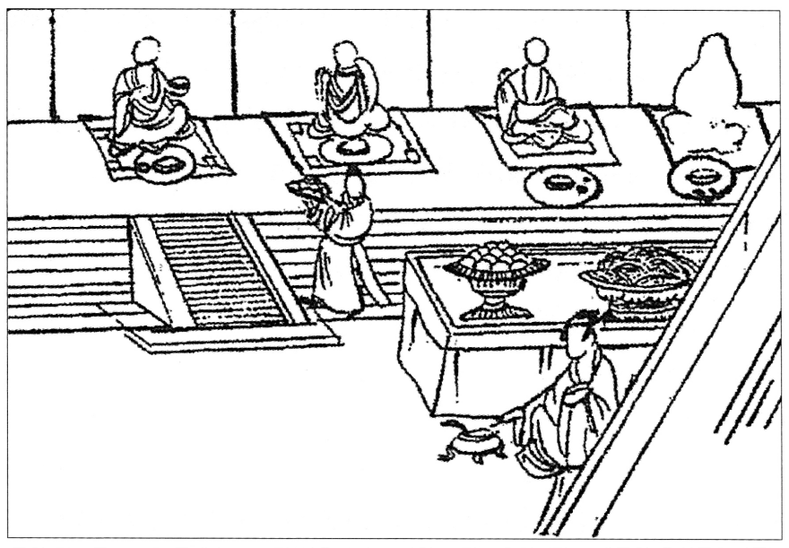
다음은 동양의 맛이론과 불교에서 음식을 주제로 한 여러 견해들을 모았다. 그리고 기초 자료에서 발견한 음식문화의 역사적 의의를 정리하고, 불교음식의 이론적 배경을 설명한다. 바다에서 나온 실제 유물을 통해 개경의 먹거리 재료도 함께 정리했다.

"음식문화에서 다루어져야 할 또 다른 음식문화는 사료에 보이는 신라와 고려사회에서 베풀어졌던 다양한 제사음식이다. 제사의식에는 격식과 상징을 갖춘 음식을 반드시 동반하게 된다. 유교의 제사음식, 도교의 조체 음식, 불교의 헌공 공양물 등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고유음식' 과 절의 음식 '이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의 음식생활 속에서 문화로 전승되어 왔을까?"

책은 우리 밥상의 원형을 고려에서 찾는다. 그리고 그 고려 음식문화의 뿌리를 불교에서 찾는다. 책은 총 4개의 장에서 우리 음식의 내력을 정리한다.

△총론에서는 한식의 원형을 찾는다. 1700년 한국불교사에서 시작한다. 신라와 고려사회에서 있어왔던 다양한 제사의식에서 그 원형의 일부를 들여다본다.

"불교의례 속에 있던 음식물들은 점차 일상생활에서 의미를 가지게 되었으며 역사가 있는 음식이 되었다. 이렇게 음식의 역사를 찾아서 그 특징을 드러내는 것이 곧 불교음식의 기원인 동시에 살아 있는 한식의 기원으로 삼을 만한 것이다."



돈황 막고굴 236호 굴재승도 그림(선을따라 모사한 그림). 출처 〈당오 대돈황 음식문화연구〉(2004)204쪽

'전통음식문화의 기초를 놓은 불교음식' 에서는 불교음식을 한식의 기원으로 소개한다.

△제1부 '음식을 먹다' 에서는 '고려사', '동국이상집' 등 음식 이야기가 있는 책들을 소개하고, 우리 음식의 원형 형성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불교음식에 관한 이야기들을 소개한다. 그 중 '사찰음식에서의 오신채와 육식' 에서는 오신채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대승불교의 윤리관에 많은 영향을 준 〈범망경〉에서는 대산, 혁총, 자총, 난총, 흥거로 적고 있다. 〈중략〉 대산은 호릉으로도 불리며 집에서 나는 달래이다. 혁총은 염교, 산마늘, 껍질이 있는 산마늘 등이다. 자총은 파, 호총, 춘총 등이다. 난총은 양파, 작은 달래로 야생이다. 흥거는 식질, 예대, 배로자, 아위약, 긍거로라고도 한다. 이 흥거는 중국에서 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견이 많다."

△제2부 '음식을 읽다' 에서는 고려 음식문화에 많은 영향을 끼친 송의 먹거리와 개경 문인의 먹거리 그리고 역사 속의 음식들을 소개한다.

'송 개봉의 먹거리' 에서는 고려와 송의 음식교류를 살핀다. 고려인들이 중국에서 과연 어떤 음식들을 접할 수 있었는지를 보여준다. 사절단으로 송에 갔을 때 참석한 연회 장소에서 볼 수 있었던 음식들을 〈동경몽화록〉에서 찾았다. 또 중국의 바다와 육지에서 나는 소채류들이 무엇인지 또 어떠한 음식으로 만들어지며 그 이름은 무엇인지를 〈본심재소식보〉에서 본다.

'개경 문인의 먹거리' 에서는 개경 사대부들의 시집과 사료에서 음식관련 내용을 뽑았다. 최자의 〈보한집〉에서는 승려의 시를 비평한다. 가장 좋은 시를 소순기라고 하여, 소채에 비유한다.

'승려의 음식 이야기' 에서는 혜심 스님의 〈진정국사어록보유〉, 〈무의자시집〉과 천책 스님의 〈호산록〉에서 음식에 관련된 시를 발췌했다. 식재료, 음식 이름, 채소류, 과실류 등이 중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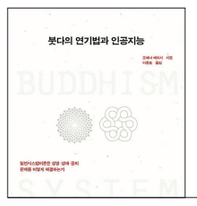
△제3부 '음식을 이야기하다' 에서는 '미론(味論)' 을 다룬 이론들을 소개한다.

'동양의 맛이론' 에서는 동양 최초의 맛이론인 오미를 〈여씨춘추〉에서, 약식동원의 근거로 오미론을 이용하여 인간의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을 의학서 〈황제소문영추경〉에서, 수나라 말기에 당시 유행했던 오행 미론의 집대성을 〈오행대의〉에서, 일상생활에서 음식관을 공자 〈논어〉 향당 편에서 발췌 수록했다.

'불교음식의 이론' 에서는 대승불교에서 불교음식을 주제로 다루어지는 경전과 논서에서 내용을 뽑았다.

저자 태경 스님은 강원도에서 태어나 해인사에서 출가했다. 봉녕사승가대학을 졸업했고, 세종대학교 경영대학원 호텔경영학과(MBA, 경영학석사), 동국대학교 대학원 불교학과에서 석사(계율) 및 박사(한국화엄, 균여) 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조계종 교육원 종단교수사리와 포교원 의례위원회 의례실무위원 등을 맡고 있다. 〈조상경-불복장의 절차와 그 속에 담긴 사상〉 〈초기화엄사상사〉 등의 저서가 있다.

인류 미래 인공지능도 '無我'



붓다의 연기법과 인공지능

조애너 메이시 지음/ 이중표 옮김
불광출판사 펴냄/ 2만2천원

오늘날의 일반시스템이론과 2600년 전에 탄생한 불교의 사상체계를 통해 자연시스템의 법칙(Dharma)을 설명한다.

신간 〈붓다의 연기법과 인공지능〉은 인공지능을 탄생케 한 시스템이론과 인공두뇌학의 기원을 불교의 연기법과 비교하며 새로운 시각으로 자연시스템을 설명한다.

인공 지능의 개념은 이미 2차 세계대전 때 시작됐고, 인공지능에 영향을 끼친 시스템이론은 유럽 중세시대에 태동했다. 그리고 그 시간을 더 거슬러 올라가면 시스템이론과 너무도 흡사한 사상을 발견할 수 있다. 2600년 전 탄생한 佛法의 요체 '연기법' 이다.

책은 두 영역에서 공통점을 찾아 하나로 엮어낸다. 이러한 상호해석을 통해 인공지능은 물론, 생명 · 생태 · 윤리 등에 관한 철학적 토대와 도덕적 근거를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다.

인공지능시대는 이미 오래 전에 우리 일상 속에 와 있었다. 밝은 미래와 암울한 미래의 엇갈린 시선이 공존하지만 인공지능시대의 흐름을 거스를 수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얼마 전 알파고의 등장과 그 성과는 인류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했다. '밝은 미래' 와 '암울한 미래' 사이에 서있는 인류의 삶은 과연 어떤 모습을 할 것인가. 또 어떤 모습을 찾아가야 할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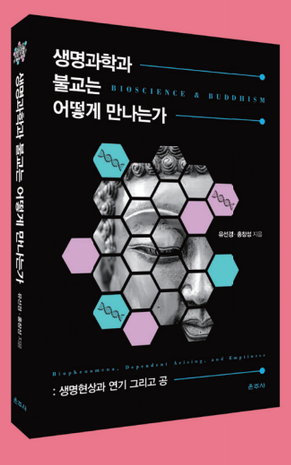
"우리의 세계를 치유하기 위해서, 우리는 계층적 실재관과 단일 방향적 '인과' 패러다임으로부터 물려받은 물질에 대한 두려움과 증오로부터 벗어나야만 한다. 사실 불교와 시스템이론은 물질계가 이미 마음과 분리된 영역이 아니라 정신적 사건들과 인과적으로 함께 발생하는, 또는 그것들이 분리할 수 없는 상호관계를 맺고 있는 것임을 보여준다. 나는 이러한 시각이 인간의 의식을 구원하고 폭넓게 한다는 사실이 이 책을 통해 전달되기를 희망한다."

책은 일반시스템 이론과 불교의 연기법이라는 두 사상 체계를 활용해서 상호인과율의 특성을 밝히고 자연시스템의 법칙(Dharma)을 설명한다.

생태철학자이자 불교학에도 조예가 깊은 저자 조애너 메이시는 기원과 목적이 너무나도 다른 불교의 연기법과 현대의 시스템이론이 상호해석 가능하며, 이를 통해 두 사상을 더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다고 보았다. 두 사상을 연결하는 고리는 '상호인과율' 이다. 상호인과율이란 원인과 결과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뜻으로, 원인과 결과가 일방적인 방향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상호작용을 하며 원인들끼리도 서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과학자들은 이를 순환적 인과관계, 또는 호혜적 인과관계, 상호적 인과관계, 상호결정 등으로 정의한다. 그리고 일반 시스템이론이 바로 이 상호인과율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을 설명한다. 그리고 그 상호인과율은 이미 오래 전에 있었던 불교의 '연기법' 과 닮아 있는 것이다. "연기를 보는 사람은 법을 보고, 법을 보는 사람은 연기를 본다"고 경전이 전하는 것처럼, '연기' 는 붓다가 깨달은 실체 그 자체이다. 연기법 안에서 실재는 역동적인 상호의존적 과정으로 나타난다. 현상은 불변하는 본질 없이 신체적, 정신적 요소들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발생한다. 따라서 '무아' 이며,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받으며 변화한다. 이것을 오늘의 언어로 바꾸면 '자연 시스템 법칙' 이 되는 것이다. 불교에서는 상호작용 속에 자아는 없다고 말하는데, 이는 곧 인공지능이 더 발달해 인간처럼 사유하고 판단하게 되더라도 결국 '무아' 일 수밖에 없다는 의미가 된다. 저자는 인공지능뿐만 아니라 자연 시스템에서도 고정불변의 속성 같은 것은 없다고 말한다. 상호인과율로 통칭되는 이 이론에서, 인간 개개인이 그 상호발생적 패턴에 참여하고 있음을 인정할 때, 인간 의식의 구원은 물론 미래 사회의 긍정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불교와 현대과학 이론을 융합하여 철학적 토대를 마련한 저자의 뛰어난 통찰력은 우리에게 인류의 미래를 밝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인공지능으로 대변되는 인류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책은 현대의 시스템과 불교가 그 기원과 목적이 명백하게 다름에도 불구하고 상호 해석이 가능하고, 상보적인 해석을 통해 두 사상이 보다 확실하게 이해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상보적인 해석을 통해 인문학과 자연과학을 포괄하는 원리들이 드러나며, 그것들이 우리 시대에 출현한 생태학적 세계관의 철학적 토대와 윤리적 근거가 된다는 것이 책의 요지다. 박재완 기자

불교를 통해 생명현상을 이해하고,
생명현상을 통해 불교를 이해하다!



생명과학과
불교는
어떻게 만나는가

본질주의에 입각한 서구의 생명과학은 생명현상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 불교의 연기와 공의 관점만이 현대 생명과학이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

유선경, 홍창성 지음/국판 무선/336쪽/값 15,000원

30년 동안 다람살라에 머물며, 스승 달라이 라마를 모시고
수행과 봉사의 삶을 살아온 청전스님이 풀어놓는 이야기들!



안녕, 다람살라

달라이 라마를 직접 모시지 않았으면 경험하지 못했을 일화들!
어린아이처럼 순진무구하고 티없이 맑은 노스님들의 이야기!
오로지 부처님만을 믿고 살아가는 민중들의 소박하고 감동적인 모습들!

청전 지음/국판 무선/200쪽/값 14,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